관광시설사업소 정기감사 결과보고

《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18. 9. 12. ~ 9. 14.(3일간)
- 감 사 반 : 4명(감사팀장외 3명)
- 감사범위 : 2016년 9월 이후 사업소 업무 전반
- 중점감사내용
 - 세출, 물품관리, 각종 공사 적법처리 여부등

감사결과

일련 번호	소 관	제 목	행정상 조치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8건	8	6	2	
1	휴양팀	건설공사 공사감독 업무 소홀	1	1		
2	충의사팀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1	1		
3	예당관광지팀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1		1	
4	공 통	전기요금등 연체료 집행 부적정	1	1		
5	공 통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1		1	
6	충의사팀	법인카드 결제계좌 예금이자 미반납	1	1		
7	충의사팀	수입 인지 · 증지 미소화	1	1		
8	충의사팀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1	1		

□ 주요지적사례

■ 건설공사 공사감독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라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에 수반되는 추가공사, 시공방법의 변경, 그밖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을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철거작업에서 장비 진입이 불가할 것으로 설계반영하였으나, 추후 장비의 진입로가 확보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지만, 감사일까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 감액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정산을 하여야 하나,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2건의 준공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하면서, 설계에 계상된 금액보다 초과 사용한 금액을 그대로 정산하여 초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기준』에 따라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재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을 편성운영하고, 건물, 공작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지만,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사업내용이 구축물 설치등으로 시설비로 집행하여함에도 공공운영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전기요금등 연체료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하나,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전기요금등 연체료'등 연체료에 대하여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예산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 미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6.84%(할인 5.74%, 포인트적립 1.1%)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도 등록된 주유소를 사용하지 않는 등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 법인카드 결제계좌 예금이자 미반납

-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며, 각종 통장(계좌)의 이자수입에 대해 매년 세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카드 카드 결제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수입인지·증지 미소화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일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20,000원의 수입인지를 소화해야 하며,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 따라 계약예정가격이 일천만원이상수입증지(10,000원)를 징수해야 함에도,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4건에 대하여 수입인지(40,000원) 및 수입증지(20,000원)를 미소화 한 사실이 있다.

■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미매입 소홀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1.5%, 건설공사·용역계약은 2.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13건에 166,149천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950천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부족하게 받은 사실이 있음.